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관계 변화의 경제안보적 고찰: ‘경제적 위협균형’을 중심으로

김지영\*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중·러의 경제적 위협균형 정책 |
| II. 이론적 분석틀: 경제적 위협균형 | V. 결론                |
| III. 중·러의 경제적 위협균형 인식 |                      |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스테판 윌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경제적 관점으로 확장하여 국제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서 느끼는 위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군사적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위협균형 이론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의 제재와 무역 장벽이 중국과 러시아에 실질적인 경제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는 탈달러화를 목표로 독립적인 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는 사례이다. 이는 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BRICS)가 미국 중심 경제 질서의 도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위협균형 이론을 군사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경제적 위협이 국제 협력과 동맹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러시아 사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 경제 협력체가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국제정치와 경제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현대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 주제어: 우크라이나 전쟁, 위협균형, 중·러 협력, 브릭스,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

## I. 서론

국제정치에서 스테판 월트(Stephen M. Walt)의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 이론은 국가들이 단순히 힘의 균형만이 아니라, 상대의 위협을 평가하여 동맹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전통적 군사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나, 글로벌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대 국제정치에서는 경제적 위협에 대한 균형 형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와 이에 따른 제재, 무역 장벽, 금융 지배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비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적 협력 체제를 모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였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규모 금융 제재를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이후 스위프트로 표기)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되면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사실상 고립되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약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화 보유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루블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동시에,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2018년 이후 대미 수출액이 16% 감소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양국 간 무역액은 1,850억 달러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러시아는 대중국 원유 수출량을 55%까지 증가시키며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분야에서도 양국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와 루블화를 활용한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중국 간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17%에서 2023년 48%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브릭스(BRICS) 국가 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국가들은 2023년 기준 세계 인구의 약 44.8%,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G7의 지배적 경제체제를 넘어서는 규모이다. 그리고, 브릭스(BRICS)회원국들은 달러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스테판 월트(Stephen M. Walt)의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 이론을 경제적 관점에 확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제정치학과 국제경제학의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위협균형 이론은 군사적 위협과 안보 동맹 형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본 논문은 경제적 위협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이를 둘러싼 국가 간 협력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위협균형 이론이 현대 국제정치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론적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본 논문은 중국과 러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위협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촉진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여 무역,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위협이 국가 간 전략 관계 강화와 상호의존의 심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준다. 이는 국제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본 논문은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와 같은 신흥 경제 협력체의 등장을 경제적 위협 균형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브릭스(BRICS)와 같은 비서방 협력체를 미국 패권에 대한 단순한 도전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본 논문은 이를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의 등장 배경과 그 영향력을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탈달러화 대체를 위한 노력이 신기술 기반 경제협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명하며, 미래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중·러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테판 월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협이 국가 간 관계와 상호의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론적으로 확장한다. 제3절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인식하는 경제적·안보적 위협과 이에 따른 양국 관계 인식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양국의 협력 동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제4절에서는 경제적 위협균형의 정책적 측면을 논의하며, 브릭스(BRICS) 체제의 확대와 탈달러화 결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사례를 고찰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탈달러화 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를 탐색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논의를 요약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문적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II. 이론적 분석틀: 경제적 위협균형

### 1. 선행연구분석: 중·러 관계의 전환

중·러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북·중·러 삼각관계의 관점, 미·중·러의 지정학적 관점, 중·러 군사 안보 협력의 관점, 중·러 경제협력 관점을 포함하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북·중·러 삼각관계의 관점에서 중·러 관계를 분석한다. 황상필은 북·중·러 삼각 공조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주요 전략임을 강조하면서도, 각국의 다른 전략적 목표와 역사적 불신이 장기적 협력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황상필 2024). 김연철(2023)은 북·중·러 삼각관계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전환 속도 차이를 활용해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장덕준(2024)의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포탄과 군사 기술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관계를 형성했다고 분석하였다. 장덕준은 그의 연구에서 북·러 협력이 정치적, 군사적 연대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이 이 협력 구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둘째, 다른 학자들은 미·중·러의 지정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중·러 관계에 접근하고 있다. 박창희는 주요 강대국의 안보 정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정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박창희 2006).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두 가지 지정학적 개념, 즉 지리적, 전략적 수준에서 형성된 역학인 “지정학적 균형”과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웃 국가 또는 주변국인 “영향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미국과 동맹의 변화가 중·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김선재(2022)는 스테판 월트(Stephen M. Walt)의 위협균형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준동맹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위협균형의 개념은 본 연구의 접근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군사 안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위협균형의 개념을 적용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김재관(2016)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21세기 중·러 관계의 발전 요인을 분석하며, 미국이 중·러 관계 발전의 핵심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는 안보, 역사 구조,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조합을 통해 중·러 협력이 강화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중·러 관계 발전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재관은 대체로 중·러 연대와 경쟁해야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나토(NATO)의 동진과 미국 세력 유지를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재균형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는 미국과 중·러 협력의 동학을 다양한 측면에서 잘 다루고 있지만, 다른 논문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복합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별 관점에서의 깊이를 놓치는 한계가 있다.

김재관(2021)의 또 다른 연구는 21세기 이후 중·러 관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협력 요인, 경쟁 요인 및 갈등 요인이 상호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시진핑과 푸틴 두 지도자가 집권한 이래로 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의 요소가 크게 줄어들었고, 협력 요소가 압도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지도자 시기 중·러 관계는 “사실상의 동맹”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안보의 조건이 다르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러 간의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중·러 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조명하는 연구도 있다. 최재덕의 연구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중·러 관계와 미·중 패권 경쟁, 중앙아시아의 일대일로 확대와 중국식 세계화, 경제 및 안보 이익의 충돌로 인한 중앙아시아에서 중·러 관계의 확대 등 포괄적으로 다루었다(최재덕 2019).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중국식 세계화를 추구한다면, 결국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중·러 관계의 구조적 한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재익(2021)은 21세기 들어 중·러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연합작전 수준의 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특히 2019년과 2020년 중·러 군사훈련에서 두 나라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중·러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양국 관계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다. 실바나 말레(Silvana Malle)는 서방의 제재와 미국의 해양 통제가 중·러 양국의 육상 교통 및 에너지 협력으로 이어지며 상호의존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Malle 2017). 마르타 칼슨(Märta Carlsson), 수잔 옥센스티에르나(Susanne Oxenstierna), 미카엘 바이스만(Mikael Weissmann)은 그들의 공동 연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자간 협력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선호한다고 평가하면서, 일대일로(BRI)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가 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Carlsson et al. 2015). 조나단 힐만(Jonathan E. Hillman)은 중·러 간의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건설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부패와 인프라 부족이 투자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sup>1)</sup>

다시 정리하면, 중·러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중·러 또는 북·중·러의 동학에서 군사 안보적인 관점으로 중·러 관계에 접근하거나, 경제적 상호의존 개념으로 중·러 경제협력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양국은 미국과 서방의 공급망 분리 시도 및 경제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협력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중·러 관계를 미국 및 서방으로부터의 경제 위협에 대한 균형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간의 양자와 다자적 경제전략 변화를 분석한다.

## 2. 이론적 개념: 경제적 위협균형

스테판 월트(Stephen M. Walt)의 ‘위협균형(balancing of threat)’ 개념은 ‘세력균형(balancing of power)’ 개념과 함께 국제관계학에서 국가들이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Walt 1985; Waltz 1979). 두 개념 모두 국가들이 외부 대상에 대응해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대응 대상이 ‘힘(power)’이나 ‘위협(threat)’이냐에 따라 그 성격과 전략이 달라진다.

세력균형(balancing of power)은 특정 국가나 연합체가 가진 ‘힘’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즉,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강대해지면 주변 국가들은 그 힘 자체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맹 형성 및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해 구조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 접근법은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두 초강대국으로 등장했을 때, 각국은 이 둘의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토(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동맹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고자 했다.

1) Hillman, Jonathan E. (2020), “China and Russia: Economic Unequals”, <https://www.csis.org/analysis/china-and-russia-economic-unequals>. (2024년 11월 10일 검색)

위협균형(balancing of threat)은 단순히 힘의 크기보다는 그 힘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중심으로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대응한다고 설명한다. 월트(Walt)는 네 가지 요소(총력, 인접성, 공격 능력, 공격 의도)에 따라 국가들이 상대국을 위협으로 인식할지 결정한다고 보았다. 이 요소 중 하나라도 위협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국가들은 동맹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시행되면서 러시아는 경제적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월트(Walt)의 위협균형 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위협 요인 중에서 세 가지 위협 요인을 선택하여 경제적 위협균형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인접성 요소를 제외한 것은 국제 경제체는 지정학적 특징과 달리 탈경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첫째, 상대적 힘(Relative Power)은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역량을 포함하여 한 국가가 가지는 전반적인 힘의 수준을 나타낸다. 국력이 셀수록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함으로, 국가들은 강대국일수록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달러는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 중앙은행 외화 보유액의 약 58%를 차지하고, 국제 무역 거래의 약 88%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sup>2)</sup> 또한, 글로벌 은행 간 거래의 90% 이상이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제 결제 시스템(SWIFT)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BIS 2022). 이러한 통제는 달러가 국제 무역과 금융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공격 능력(Offensive Capabilities)은 상대국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제재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경제적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스위프트(SWIFT)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 결제의 약 90%가 달러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미국이 특정 국가를 스위프트(SWIFT)에서 배제하거나 금융 자산을 동결하여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

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4),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COFER)”, <https://data.imf.org>. (2024년 11월 30일 검색)

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러시아의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SWIFT)에서 차단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연합뉴스』 2024/06/12). 또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첨단 기술의 접근을 차단하여 중국 경제에 전략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적 공격 능력이 단순히 무역 제재를 넘어 국제 금융 및 기술 통제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공격 의도(Offensive Intentions)는 상대국이 실제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도입하여 10년간 약 3,69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지원하며, 미국 내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법률신문』 2022/09/08). 이 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미국산 배터리와 소재 사용으로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배터리와 원자재 공급망을 약화하려는 공격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하고 있다(*Bloomberg News* 2023/09/28).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국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고, 미국 내 기업들은 약 4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sup>3)</sup> 2025년 시작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대대적인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이 자국 경제와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며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 절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적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3)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23), "Unpacking the European Union's Provisional Tariff Hikes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https://www.csis.org/analysis/unpacking-european-unions-provisional-tariff-hikes-chinese-electric-vehicles>. (2024년 11월 10일 검색)

### Ⅲ. 중·러의 경제적 위협균형 인식

####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경제제재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고, 이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서방 자본이 대러 투자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들의 투자 총액은 2018년에는 87억 8,500만 달러, 2019년에는 319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404억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네덜란드, 키프로스, 버뮤다 등의 세금 천국에서의 투자를 제외하면, 투자 순위 상위 국가들은 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그러나 제재 이후에는 많은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미국과 서방은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 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스위프트(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 외환을 동결하는 등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했다. 수출통제의 측면에서 미국은 해외 직접 생산 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했으며, 제재 대상과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은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지위를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인 가운데, 일방적인 최혜국대우(MFN) 지위 취소의 통상법적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작지만, 일부 원자재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 관련 산업의 공급망 문제, 러시아 제재의 중국 확산 가능성 등이 주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스위프트(SWIFT) 체제에서 배제하자,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처지에서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된다. 중국은 자국의 통화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망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브릭스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대인도 수출량 증가는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2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10월에는 41억 2,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런 교역량의 변화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봉쇄로 인한 에너지 판매처를 대체할 수 있었고, 상대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었다. 중국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매할 때 평균 구매 가격이 톤당 708달러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구매 가격인 816달러보다 15% 이상 저렴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대략 30억 달러를 절약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들은 자본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위안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자원개발 기업 중 하나인 루살(Rusal)은 2022년 7월에 위안화로 표시된 20억 위안(한화 약 3,638억 원) 상당의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고, 금광 기업인 폴리우스(Polys)도 2022년 8월에 46억 위안(한화 약 8,367억 원)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또한, 러시아 최대의 원유 개발 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는 2022년 9월에 150억 위안(한화 약 2조 7,285억 원) 상당의 10년 만기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 2. 중·러의 대미 경제적 위협인식

미국의 대중국 억제전략은 중국에 위협으로 인식된다. 1990년대부터 초부터 국제사회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위협 가능성을 지속해서 제기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와 첨단 기술 분야의 도전은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중국 억제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피보트 아시아(Pivot to Asia)라는 전략 방향의 전환, 바이든 미 행정부의 디커플링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정책 등을 통해 대중국 경쟁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대중국 경제적 압박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한다. 중국상무부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와 반도체 봉쇄를 “경제적 강압”으로 규정하며, 이는 중국의 기술적 자립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아주경제』 2024/12/03). 그리고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계속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행하고 있다”며 강조하였으며, 중국은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활동을 군사적 봉쇄로 인식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를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8/29). 중국국방백서에 따르면,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전략적 환경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Chinese Defense White Paper 2015). 또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 Global Times)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봉쇄를 “신냉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대중국 “탈동조화(Decoupling)”와 군사적 포위를 통해 중국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 및 군사적 발전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가하는 경제적 제재를 자국의 주권과 경제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여러 차례 비판해 왔다. 2024년 10월 23일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달러의 이용은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실수”라며, 서방의 경제 제재가 세계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향신문』 2024/10/24). 그는 이러한 위협 인식과 함께 브릭스 국가들이 독립적인 경제·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달러 패권에 대응해야 하며, 서방의 경제 압박이 러시아의 경제 주권과 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 노골적인 보호주의, 그리고 통화 및 주식 시장 조작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력을 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새로운 국제 분

쟁의 등장과 루블화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방의 경제적 압박이 국제 안보와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연합뉴스』 2024/10/25). 또한, 2022년 연설에서 서방의 제재를 “글로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에 기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시 정리하면, 중국과 러시아 지도부의 발언들은 서방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러시아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으로부터 경제적 위협을 느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담론을 형성해 왔다.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과의 경제적 연계를 점차 끊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서방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Foreign Policy* 2024/10/21).

중국과 러시아는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경제적 의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서방의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에 맞서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양국 경제 관계의 확대를 공식화했다(*Foreign Policy* 2023/01/19). 이와 같은 담론은 서방 제재에 대응하여 양국이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적 협력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경제 질서를 형성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의에서는 양국이 “서방 경제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 다자간 경제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다자적 협력은 양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해석된다.<sup>4)</sup>

4) Fong, Clara and Lindsay Maizland (2024), “China and Russia: Exploring Ties

정책 담론 변화의 또 다른 축은 무역의 탈달러화에 있다. 2024년 현재 중·러 양국은 상호 교역에서 달러 대신 루블과 위안화를 사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경제 체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서방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각국의 금융 시스템 결합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경제 의존성을 높이고자 한다.<sup>5)</sup>

## IV. 중·러의 경제적 위협균형 정책

### 1. 중·러 무역통상과 에너지 교역의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교류 협력을 이어왔다. 공식적인 유대관계는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다시 한 번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가 5G 시범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 기업들이 서방 시장에서 더욱 많은 규제를 받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거래는 시진핑이 2019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체결되어 상징적 중요성을 더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과는 달리, 러시아는 여전히 5G 네트워크에 대한 다른 옵션을 모색하고 있으며, 스펙트럼 할당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화웨이가 러시아 5G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화웨이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공급업체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sup>6)</sup>

중국과 러시아는 상업적 및 군사적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대체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 개발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시스템은 냉전 시대에 개발되었지만, 1995년까지는 24개 위성의 운영 용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의 BeiDou 위성 네트워크는 2024년 기준으로 완

---

Between Two Authoritarian Powers”, <https://www.cfr.org/background/china-russia-relationship-xi-putin-taiwan-ukraine>. (2024년 10월 30일 검색)

5) Ibid.

6) Hillman, Jonathan E. (2020), “China and Russia: Economic Unequals”, <https://www.csis.org/analysis/china-and-russia-economic-unequals>. (2024년 10월 30일 검색)

성되었고, 120개국에서 4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5년, 중국과 러시아는 이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는 양국 시스템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일대일로 운송 경로를 따라 위성 장비를 테스트하고 서로의 기지국을 호스팅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위성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상 및 해저 케이블을 보완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sup>7)</sup>

우크라이나 전쟁이전에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투자 기회를 위해 중국에 의존한 부분들이 있었다. 러시아 북극의 야말 LNG 프로젝트는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실행이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은 실크로드 펀드, 국가 정책 은행의 대출, 그리고 국유 기업을 통한 투자로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중국은 실크로드 펀드와 국유 기업을 활용하여 러시아 최대 석유화학 회사인 시부르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간 협력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의 투자 유치도 모색하고 있다.<sup>8)</sup>

하지만, 과거 양국의 경제협력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기도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는 투자의 새로운 장을 열기보다는 기존의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공동 프로젝트 목록이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으나, 실제로 실행된 프로젝트는 매우 적었다. 2009년, 후진타오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200개가 넘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5년 후 실제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4년과 2015년,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개의 경제특구(SEZ)를 설립했으나, 그중 6개만이 중국 투자를 유치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특구들이 유치한 중국 투자 총액은 3,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복잡한 절차,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부패와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투자 환경을 제한하고 있다.<sup>9)</sup>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유럽 시장 상실의 대안으로 중국과의 협력

7) Ibid.

8) Ibid.

9) Ibid.

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무역 구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속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양국 간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7% 증가한 938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 시장의 축소를 중국과의 협력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중국이 러시아산 원자재나 필수 소비재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통상 관계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2022년 5월에 나온 미국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무역, 에너지, 금융, 기술, 항공우주 분야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의 대러 무역 비중은 2013년 11%에서 2021년 18%로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 내 유럽연합과의 무역 비중이 중국과의 비중으로 옮겨간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에 에너지, 비료, 금속(금, 니켈, 티타늄, 백금 등)을 포함한 전략적 수출을 제공하며, 중국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을 러시아로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밀에 대한 수입 규제를 풀었다. 중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기계·전자(288억 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금속(57억 달러), 섬유·의류(54억 달러), 자동차·선박·항공기(50억 달러)의 비중이 그 뒤를 잇는다. 특히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자재와 소비재가 중국으로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총무역량의 약 2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sup>10)</sup>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특히 필수 소비재와 기초 산업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동안 러시아는 중국에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 장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재화를 공급했다. 이러한 상품들은 서방 제재로 인해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이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필요 물자 수급을 원활히 하며, 또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관계는 양국이 서방의 경제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 Fong, Clara and Lindsay Maizland (2024), "China and Russia: Exploring Ties Between Two Authoritarian Powers", <https://www.cfr.org/background/china-russia-relationship-xi-putin-taiwan-ukraine>. (2024년 10월 30일 검색)

무역 거래의 형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은 서방 주도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루블과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양국 간 무역 거래의 약 70%가 자국 통화로 결제되고 있으며, 이는 서방 금융 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목표의 일환이다. 달러 대신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양국은 서방 경제제재의 영향을 줄이고,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러 간 무역 통상 관계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경제의존을 강화하며 서방 중심의 경제 질서에서 독립적인 교역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방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중·러 협력은 무역통상 관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강화되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이 감소하자 중국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방의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러시아를 선택하고 있다.<sup>11)</sup> 2023년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2023년 약 140만 배럴의 원유를 하루 평균 중국에 공급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Foreign Policy* 2023/01/19).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국이 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량도 급증하여 2023년 약 540만 톤의 석탄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sup>12)</sup>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양국 간 협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연간 약 227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공급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The Economist* 2024/03/18). 또한, 양국은 ‘시베리아의 힘 2’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때 연간 약

11) Ibid.

12) Ibid.

5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3)</sup>

석탄 분야에서도 중·러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2023년 중국에 약 540만 톤의 석탄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석탄은 중국의 주요 에너지 자원 중 하나로, 러시아의 석탄 수출 확대는 중국의 산업 생산 및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협력 강화는 양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며, 서방의 경제 제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양국은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상하이 협력 기구(SCO)와 브릭스(BRICS)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에 맞서는 독립적 에너지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자국 통화를 활용한 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이는 중·러 간의 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Foreign Policy* 2024/04/30).

## 2. 경제적 위협균형과 브릭스 체제

### (1)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퇴출과 경제적 위협인식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이 주요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서 퇴출한 조치는 러시아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약 11,000개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었으며, 글로벌 금융망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부딪혔다. 스위프트(SWIFT)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로, 국가 간 자금 이체 및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서 퇴출된 것은 그들의 외부 거래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루블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해 달러 대비 약 30%의 손실을 보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대외 결제 방식에 있어서 빠르게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비서방 결제 네트워크

---

13) Ibid.

크 구축에 집중하게 되었다(*Foreign Policy* 2024/10/30).

러시아는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서 퇴출됨에 따라 국제 금융 시장에 서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미국과 유럽의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힘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2,820억 달러 상당의 해외 자산이 동결된 상황에서 서방 주도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대체 경로가 절실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대러 금융제재가 러시아의 중국 위안화 사용 확대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하며, 러시아는 현재 에너지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탈달러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은 점차적으로 위안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기존 달러 기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Foreign Policy* 2024/10/30).

이와 같은 대응 조치는 브릭스(BRICS) 내에서 탈달러화 논의를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적 금융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자 다니엘 맥도웰(Daniel McDowell)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탈달러화 노력은 단순한 거래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서방 제재로부터 벗어난 독립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자립적 결제 네트워크 구축이 브릭스(BRICS) 전체에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은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안화 및 기타 비달러 통화로 외환 보유액과 무역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Foreign Policy* 2023/08/18).

결국,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서 러시아가 퇴출된 사건으로 인해 브릭스(BRICS) 회원국 간 대안적 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새로운 탈달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서방의 금융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외 결제를 수행함으로써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브릭스(BRICS)의 탈달러화 움직임은 미국 주도

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 (2) 경제적 위협균형을 위한 브릭스(BRICS) 체제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BRICS)의 확대 개편을 가속화하며, 서방 경제 블록으로서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방의 경제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와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중국은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대안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3년 8월 22-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15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신규 회원국으로 초청되면서 브릭스(BRICS)는 기존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The Economist* 2024/3/18).

브릭스(BRICS)의 이번 확대 개편은 중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중국은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구성을 통해 글로벌 남반구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브릭스(BRICS)의 총 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52.3%로 가장 높으며, 인도가 22.1%, 러시아가 9.9%, 브라질이 6.8%, 이집트가 3.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브릭스(BRICS) 내부에서 중국과 인도가 핵심 국가임을 보여준다. 2029년 추정치에서는 인도의 비중이 25.3%까지 확대되고, 중국은 51.4%, 러시아는 8.5%, 브라질은 6.1%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정호 외 2024).

정치학자 라자 모한(C. Raja Mohan)은 “중국은 브릭스(BRICS)를 통해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흥 경제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Foreign Policy* 2023/08/29). 중국은 특히 서방 경제 연합을 목표로 브릭스(BRICS) 내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이러한 급격한 확대가 브릭스(BRICS)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지나치게 반미 성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브라질의 정치학자 올리버 스텐켈(Oliver Stuenkel)은 “브라질은 브릭스(BRICS)의 비동맹 성격을 중요시하며, 지나친 확장이 브릭스(BRICS)의 독

립적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Foreign Policy* 2024/10/30).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이전 서방 동맹국들이 브릭스(BRICS)의 경제연합에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의 사랑 시도르(Sarang Shidore)는 “전 세계 남반구 국가들은 서방 주도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브릭스(BRICS)의 확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로의 확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Foreign Policy* 2023/08/29).

브릭스(BRICS) 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연합을 넘어, 기존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흥 경제국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확대는 브릭스(BRICS)회원국들이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각국의 자산 보호와 결제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는 향후 대안적 경제 질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Foreign Policy* 2023/04/24).

마지막으로, 브릭스(BRICS)의 확대는 글로벌 경제의 다극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존 G7과 같은 서방 중심의 경제연합과 대조적으로, 브릭스(BRICS)는 비서방 경제 블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흥 시장 국가 간 협력의 틀을 강화하려 한다. 이에 따라 브릭스(BRICS)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연합체가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에서 비서방 국가들의 자율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것이며, 향후 BRICS의 발전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고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된다(*The Economist* 2024/3/18).

윌트(Walt)의 위협균형 이론에 따르면, 국가들은 단순히 힘의 크기뿐 아니라 위협의 속성, 특히 상대적 힘, 공격 의도, 공격 능력에 따라 동맹을 형성하거나 강화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브릭스는 세계 경제의 비대칭적 힘 구조를 재조정하기 위해 결속력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브릭스(BRICS) 국가들의 GDP는 세계 경제의 약 32.6%를 차지하며, 이는 G7의 30.7%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는 브릭스(BRICS)가 경제적 협력을 통해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 구조의 상대적 힘을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Economist* 2024/03/18).

브릭스(BRICS)의 이러한 행보는 서방의 공격 의도와 공격 능력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월트(Walt)는 위협의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을 강조했는데, 브릭스 국가들은 서방이 경제 제재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성장과 자율성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특히 미국의 달러 패권을 공격 능력의 핵심으로 보고, 브릭스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을 통해 비달러 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려 한다. 또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서방의 “불법적 일방적 제재와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며, 다극화된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존 이켄베리(John Ikenberry)가 주장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연결되며(Ikenberry 2001), 경제적 주권을 회복하려는 브릭스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브릭스(BRICS)는 위협균형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경제적 대응을 통해 미국과 서방의 경제적 압력을 분산시키려 한다. 상대적 힘의 강화, 공격 의도에 대한 공동 인식, 그리고 공격 능력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은 브릭스가 다극화된 글로벌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경제적 안정과 주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경제적 위협균형을 위한 탈달러 전략: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운영하는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의 일부 개념을 차용했다. 브릭스(BRICS) 회원국이 독자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기술적 모델로 삼고 있다.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는 2021년 9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시작한 프로젝트로, 중

양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참여하면서 프로젝트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4년 10월 국제결제은행(BIS)이 프로젝트를 참여국의 중앙은행들에게 이관하면서 독립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 비해 거래 시간을 몇 초로 단축하고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는 성과를 내었다. 2023년 6월 국제결제은행(BIS)은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가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참여하여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실험이 성공을 거두면서,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가 이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였다(*Foreign Policy* 2023/08/29).

<표 1> mBridge와 BRICS Bridge 비교

| 항목      | mBridge 프로젝트   | BRICS Bridge  |
|---------|--|---|
| 시작국가    | 2021년 9월: 국제결제은행(BIS)과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프로젝트 시작.          | 2024년 2월 27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BRICS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구축 계획 발표. |
| 추진과정    |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참여.<br>2024년 10월: BIS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참여 중앙은행에 이관. | 2024년 10월 22-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16차 BRICS 정상회의에서 개발 논의.          |
| 현재상태    | 참여 중앙은행들이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음.   | BRICS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시스템 개발 중.                                      |
| 운영주체    | 국제결제은행(BIS) 주도, 이후 참여 중앙은행으로 이관.                                       | BRICS 회원국 주도.   |
| 참여국가    |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 목적      | 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 의존도 감소 및 회원국 간 무역·금융 거래 효율화.                       |
| 정치적 중립성 | BIS 주도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  | BRICS의 정치적 목표 반영.   |
| 기술적 기반  | 블록체인 기반의 mBridge Ledger 활용.  | mBridge 기술을 참고하여 독자적 시스템 개발.                                    |

▪ 저자 작성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운영하는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의 일부 개념을 차용했다. 브릭스(BRICS) 회원국이 독자적인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기술적 모델로 삼고 있다.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는 2021년 9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시작한 프로젝트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후 202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참여하면서 프로젝트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4년 10월 국제결제은행(BIS)이 프로젝트를 참여국의 중앙은행들에게 이관하면서 독립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 비해 거래 시간을 몇 초로 단축하고 비용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는 성과를 내었다. 2023년 6월 국제결제은행(BIS)은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가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참여하여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실험이 성공을 거두면서,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가 이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였다(*Foreign Policy* 2023/08/29).

중국은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의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의 디지털 설계를 이끌며, 이를 통해 인민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브릭스(BRICS) 결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했다. 2023년 9월 홍콩의 금융 관계자는 “엠브릿지(mBridge) 프로젝트는 국경 간 거래에서 인민폐의 사용을 더 쉽게 만들어 주며, 홍콩이 아시아 결제 허브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금융 주권을 강화하고, 미국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장기 전략과 일치한다. 인민폐의 국제화는 중국의 글로벌 금융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브릭스(BRICS)가 미국 중심의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The Economist* 2024/03/18).

중국과 러시아는 BRICS 회원국들과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구축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16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스템 개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최종목표는 회원국들이 달러 중심의 체제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도하며,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통화 중심의 결제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탈달러 시스템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반영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 시스템이 “달러와 유로를 무기화하기로 한 서방의 결정을 더 이상 따를 필요 없이 독립적인 경제적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브릭스(BRICS)가 서방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Foreign Policy* 2023/09/01).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에게 강력한 통제력을 제공한다. 헨리 패럴(Henry Farrell)과 에이브러햄 뉴먼(Abraham Newman)은 이를 “파노프티콘(Panopticon)”과 “초크포인트(Chokepoint Effect)” 효과라고 설명하며, 미국이 국제 거래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sup>14)</sup> 대부분의 국제 거래가 미국 내 통신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금융 흐름을 감시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은 러시아가 해외에 보유한 약 3,000억 달러의 자산을 동결하고, 약 11,000개에 달하는 러시아 은행을 스위프트(SWIFT)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켜 금융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금을 축적하거나 물물교환과 같은 비전통적 방식으로 무역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Foreign Policy* 2023/04/24).

하지만,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중앙은행 간 결제와 금융 범죄 통제

14) 이 두 학자는 도구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국제 정치경제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상호의존성과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를 위한 규정을 통일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국 간 무역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통화로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브릭스(BRICS)회원국의 경제 구조가 상이하고, 통화정책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 통합 결제 시스템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랑 시도르(Sarang Shidore)는 “BRICS 브리지 프로젝트는 기존 국제 결제 시스템의 느리고 비싼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금융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흥 경제국들에게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Foreign Policy* 2023/08/18).

또한, 미국의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는 상당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애틀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디지털 화폐를 시험하는 중앙은행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해 13개국에 달하며, 이들 은행들은 국경 간 거래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고자 실험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가 기존 글로벌 금융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시사하며, 미국 중심의 금융 통제력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계 각국에서 느리고 비싼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Foreign Policy* 2023/08/29).

## V. 결론

본 연구는 스테판 월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경제적 관점으로 확장하며 국제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하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에서 느끼는 위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군사적 영역에서 논의되었던 위협균형 이론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제재와 무역 장벽이 중국과

러시아에 실질적인 경제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브릭스 브릿지(BRICS Bridge) 프로젝트와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양국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탈달러화를 목표로 독립적인 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브릭스(BRICS)가 미국 중심 경제 질서의 대안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위협균형 이론을 군사적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경제적 위협이 국제 협력과 동맹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 러시아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브릭스(BRICS)와 같은 신흥 경제 협력체가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국제정치와 경제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현대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는 경제적 위협이 다른 지역에서 협력과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폭넓게 탐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제 협력의 장단기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브릭스(BRICS)와 같은 협력체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선재 (2022). “탈냉전 이후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중·러 삼각관계: 한국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6권. 제3호, pp. 1-30.
- 김연철 (2023). “김정은 집권기 북·중·러 삼각관계: 세 개 양자관계의 역동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4호, pp. 105-130.
- 김재관 (2016). “21세기 중·러 관계의 발전요인에 대한 분석.” 『아세아연구』. 제59권. 제2호, pp. 116-155.
- \_\_\_\_\_ (2021). “시진핑-푸틴 집권기 중·러 관계의 신추세에 관한 연구.” 『중소연구』
- 박창희 (2006).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와 중·러 관계: 기원과 발전 그리고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 제12권. 제3호, pp. 73-102.
- 송재익 (2021). “중·러 군사협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영향 연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7권. 제3호, pp. 105-131.
- 장덕준 (2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중·러 관계.” 『계간외교』. 제148호, pp. 86-100.
- 최재덕 (2019). “일대일로 2.0과 중·러 관계의 제한성.” 『평화학연구』. 제20권. 제3호, pp. 107-130.
- 황상필 (2024).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삼각 공조의 유인과 한계.” 『아시아연구』. 제27권. 제3호, pp. 159-178.
- Carlsson, M., S. Oxenstierna and M. Weissmann (2015). *China and Russia: a study on cooperation, competition and distrust*. Försvarsanalys: Totalförsvarets forskningsinstitut (FOI).
- Ikenberry, G. John (2001).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lle, S. (2017). “Russia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Moving towards cooperative behaviour.”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8. No. 2, pp. 136-150.
- Walt, S. M. (1985).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 9. No. 4, pp. 3-43.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2. 기타

- 박정호 외 (2024). “2024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2022).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Foreign Exchange Turnover in April 2022.” BIS Reports.
- “美구축함, 남중국해 中인공섬 인근서 ‘항행의 자유’ 작전.” 『연합뉴스』. 2019년 8월 29일.
-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법률신문』. 2022년 9월 8일.
- “美 대선 코앞 러시아 세걸집’ 브릭스 폐막... 푸틴 “성공적” 자축.” 『연합뉴스』. 2024년 10월 25일.
- “美 반도체 추가 제재에... 中 경제적 강압,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아주경제』. 2024년 12월 3일.
- “서방 제재 속’ 푸틴, 브릭스서 달러 대항 시스템 촉구.” 『경향신문』. 2024년 10월 24일.
- “3천억 달러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이나.” 『연합뉴스』. 2024년 6월 12일.
- “A BRICS Currency Could Shake the Dollar’s Dominance.” *Foreign Policy*. April 24, 2023.
- “BRICS Expansion Is No Triumph for China.” *Foreign Policy*. August 29, 2023.
- “Can BRICS Derail the Dollar’s Dominance?” *Foreign Policy*. September 1, 2023.
- “Can BRICS Finally Take On the West?” *Foreign Policy*. October 21, 2024.
- “Can Russia and China Breathe New Life Into BRICS?” *Foreign Policy*. August 18, 2023.
- “EU Needs More Than Just Tariffs to Counter China’s Electric Cars.” *Bloomberg News*. September 28, 2023.
- “No, BRICS Isn’t Trying to Rival the West.” *Foreign Policy*. October 30, 2024.
- “The Very Real Limits of the Russia-China ‘No Limits’ Partnership.” *Foreign Policy*. April 30, 2024.
- “Washington Is Missing a Chance to Turn China Against Russia.” *Foreign Policy*. January 19, 2023.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23). “Unpacking the European Union’s Provisional Tariff Hikes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 <https://www.csis.org/analysis/unpacking-european-unions-provisional-tariff-hikes-chinese-electric-vehicles>. (2024년 10월 20일 검색)
- Chinese Defense White Paper (2015). “China’s Military Strateg.” <http://eng.mod.gov.cn/xb/Publications/WhitePapers/4887928.html>. (2024년 11월 10일 검색)
- Fong, Clara and Lindsay Maizland (2024). “China and Russia: Exploring Ties Between Two Authoritarian Powers.”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russia-relationship-xi-putin-taiwan-ukraine>. (2024년 10월 30일 검색)
- Hillman, Jonathan E. (2020). “China and Russia: Economic Unequals.” <https://www.csis.org/analysis/china-and-russia-economic-unequals>. (2024년 11월 10일 검색)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4).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COFER).” <https://data.imf.org>. (2024년 11월 3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4년 11월 24일 |

| 논문심사일 : 2024년 12월 05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12월 16일 |

| ABSTRACT |

**An Economic Security Analysis of China-Russia  
Relations After the Ukraine War:  
Focusing on ‘Economic Threat Balancing’**

**Jiyoung Kim**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This study extends Stephen Walt’s theory of balance of threat to the economic sphere, shedding new light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It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how China and Russia perceive threats within the U.S.-centric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how the two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cooperative framework to counter these threats. Traditionally discussed within the military domain,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is demonstrated in this study to be This study extends Stephen Walt’s theory of threat balancing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o an economic one, shedding new light on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In particular, i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how China and Russia, in the aftermath of the Ukraine War in 2024, perceive threats within the US-le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strengthen their cooperative framework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threat-balancing theory, traditionally discussed in military contexts, is also meaningfully applicable in the realm of economic security. Specifically, it empirically illustrates how US sanctions and trade barriers have posed significant economic threats to China and Russia, prompting the two nations to enhance cooperation in trade, energy, and financial sectors.

China and Russia are exploring new strategies to replace the US-led

economic order through initiatives like the BRICS Bridge project. The BRICS Bridge project, aimed at de-dollarisation, represents an attemp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financial network. This highlights the rise of BRICS, centred on China and Russia, as a challenger to the US-led economic syste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extension of the threat-balancing theory from the military to the economic domain and its empirical examination of how economic threats influe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lliance formation, as exemplified by the cases of China and Russia. Moreover, it offers a detailed discussion on how emerging economic coalitions, such as BRICS, can contribute to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order. By doing so, it provides a novel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contemporary phenomena at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 Key words: Ukraine War, Balance of Threat, Sino-Russian Cooperation, BRICS, BRICS Bridge Project